



낙산사 전도... 배울 것과 남은 일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방심 반성, 전화위복 계기 삼자”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 “철저한 고증, 원형 가깝게 복원”

## 낙산사 복원·문화유산 보존대책 ‘속속’

양양 낙산사 화재의 관련,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조계종은 4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원 부실장, 중앙신도·포교단체, 낙산사 신홍사 등 당해 지역 사찰 및 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낙산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총무부장 무관 스님)를 구성했다”고 밝히는 등 사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먼저 정확한 피해 상황 및 규모를 조사한 뒤 정부와 종단, 사찰 합동으로 장기계획(4년 이상)에 의한 복원불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원불사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범종단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분담금 탕감 등 행정적인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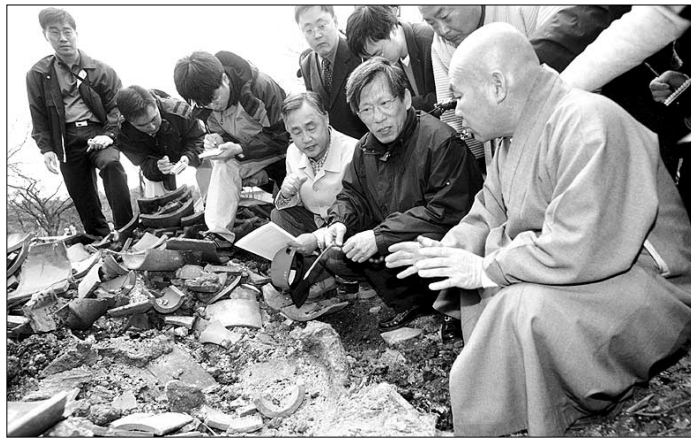
기자회견에서는 또 총무원 문화부현장장사 결과 “홍련암 인근 숲이

전소돼 지반이 약화됐다”며 강우시 수해위험이 있다고 판단, “보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6일 낙산사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소속한 시일 내 낙산사 복원추진단을 구성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할 당시에 가깝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소실된 보물 제479호 동종에 대해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탁본 및 실측자료를 토대로 6개월 이내 복원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표본의 그늘림과 일부 발락현상이 발생한 보물 제499호 7층 석탑도 “이전 파손됐던 부분과 포함해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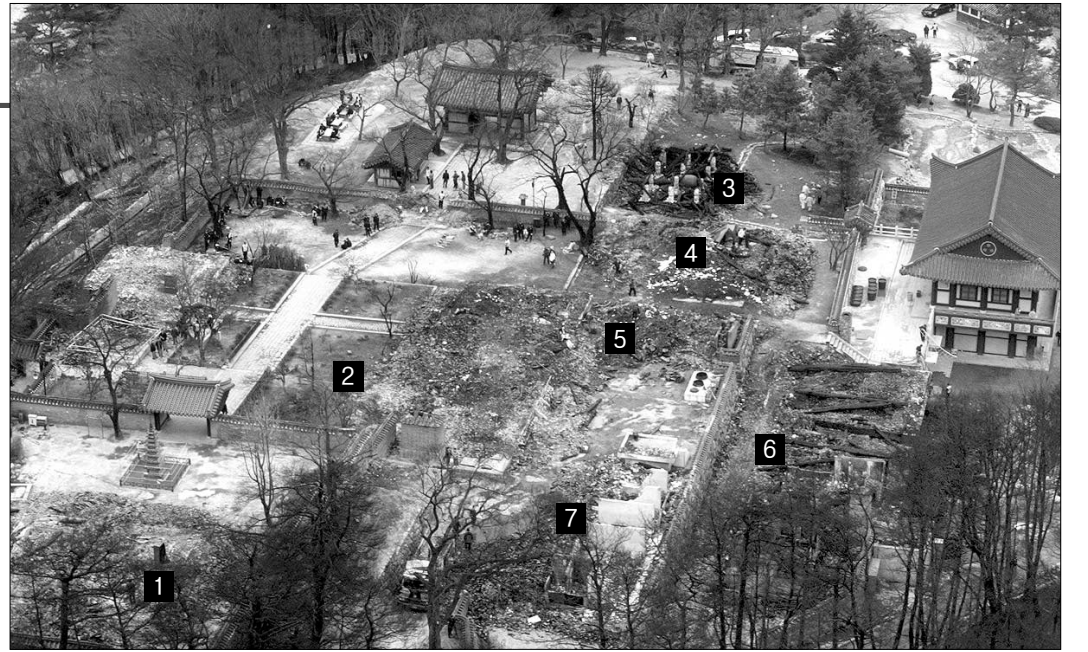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나 문화재 긴급보수비 등을 투입



신홍사 주지 마근 스님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스님 옆)이 6일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전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산불재해로 집과 농토를 잃은 이재민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음기도 성지 낙산사를 복원하는 불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양양 산불로 손실간에 새로 변한 낙산사.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7층석탑(왼쪽)이 애저름기만하다. ①-원통보전 ②-부실전 ③-범종루 ④-중무소 ⑤-취송대 ⑥-심검당 ⑦-요사채. 사진제공=연합뉴스

## ■ 낙산사 손실문화재 복원 가능성은? 원형복원 ‘동종’ 만 가능할 듯

### 건물 14동 도면없어 ‘발굴조사’ 의지해야

소실된 동종과 전각, 과연 예전 모습 그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문화재청은 피해현황을 홍예문, 원통보전 등 건물 14동과 동종(보물 479호) 소실 등으로 집계했다. 복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30억원, 기간은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원래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동종이 유일하다. 동종은 1996년 국립문화재청이 편찬한 <한국의 범종> 등에 실측자료가 충분하고, 지지사상보박물관에 탁본이 남아 있어 외형에 대한 정보는 완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리.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외형을 똑같이 제작하는 것은 어려울 없으나 종소리까지 똑같이 낼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직후 복원된 홍예문과 원통보전 등의 전각은 실측 자료가 없어 사진 자료와 발굴 결과에 근거해 복구할 예정이다. 발굴에서 한국

전쟁 이전의 유구가 발굴될 경우, 이번에 소실된 가람과는 사뭇 다른 구조로 사찰이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구에 걸려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문화재청과 조계종의 피해규모 평가에 차이다. 문화재청의 30억과 조계종의 300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박익순 기자

### 현/장/이/모/저/모

#### 자원봉사자 구슬땀

○...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서 불에 탄 나무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양양 낙산사 화재 현장에 노란색 조끼 부대들이 나타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이다. 보현의 집 70여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화재 발생

다음날 바로 현장에 도착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자원봉사자 중 남자들은 삽이나 쇠스랑을 들고 무너진 길 정비와 불에 탄 나무 치우기에 나섰다. 여자들은 빗자루를 들고 경내 정리정돈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대불경, 대불련 등 8개 단체 대표자들은 4월 6일 긴급회의를 갖고 낙산사 복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호법부 스님들 홍련암 구해

○...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낙산사 홍련암을 화마에서 구하는데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의 홍련암 요사채에서 법당으로 번지려고 하자, 호법부장 종수 스님은 곧바로 소방헬기 출동을 요청했으며 상임감찰 정암 호법과장 각우 스님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각에 있던 물을 바가지로 떠 뿌리기도 했다.

주지스님의 발빠른 ‘판단’

○... 보물 제1362호 건칠관음보살좌상과 원통보전 후불탱은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의 발빠른 판단으로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 5일 오전 1차 화재 진압이 끝난 뒤 낙산신수호스텔로 이운된 건칠관음보살좌상과 원통보전 후불탱을 원래 자리로 옮기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정념 스님은 화재 재발

을 우려해 그대로 두도록 지시해 화를 면했다.

범어사, 낙산사 복원기금 모금

○...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스님이 낙산사 화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부산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하루 빨리 낙산사가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낙산사 복원”

○... 화재 직후 낙산사 현장을 방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반드시 낙산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낙산사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정갑영 의원은 “200억이 들더라도 1300년 역사를 지닌 낙산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희미·남동우·유철주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4-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5월 1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4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포공사 관우의 관림 등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중국최초 불교사찰 중국 3대석굴 판관 포청천의 삼국지 관우의 묘지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포공사 탐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신청마감 : 2005년 4월 25일

◆ 요금 : 499,000원 ◆ 출발일 : 2005년 5월 1일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5월 1일	인천	전세기	22/00 23/00	전세기로 서울 출발/경주 도착 후 호텔휴식	
5월 2일	경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조식 후 등불,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무술 시범단 무술시범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5월 3일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린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5월 4일	경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북송의 화가 장백단이 그린 “청명상하도”의 거리를 재연한 청명상하도 관광, 판관 포청천의 기념관 인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철탑공원, 송도어가 관광, 경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휴식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5월 5일	경주	전세기	20/00 22/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수륙양용보트 USD10)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호텔식 현지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 선택 관광 : 수륙양용보트 탑승 할아 유람(\$10/1인)  
● 불포함사항 : 기사와가이드팁(\$20/1인), 여행자보험  
● 포함 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관광지 전기차,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세기, 인, 관개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이상 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 준비사항 : ① 현지 가이드와 기사팁은 미화(USD)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② 현지 음식이 기호지고 향이 강하니 개별음식(김치, 커피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국내 상점에서는 한국돈 및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니 약간의 위엔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약 금 : 175,000원 (1인 + 비자비)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

◆ 연락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7-9337 FAX 02)337-3231, 3858